

‘4개 시안+교육 가치관’ 설문으로 대입제도 바꾼다

2022 대입개편 초읽기

14일 두차례 숙의토론회 돌입
시나리오 이외 개편안 가능성도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편안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미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와 설문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특히 설문방식에 따라 어떤 권고안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4가지 시나리오 이외의 제3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회가 권역별로 이번 주말(14일~15일) 진행되고, 2차 숙의토론회는 27일~29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두번의 숙의토론회 중간에 세 차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 실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폐지·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왼쪽),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은 ‘정시 45% 이상 선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시민참여단 설문이 진행되고, 설문 결과가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보여 설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설문안이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사지선다형 설문을 통한 다수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각 시나리오별 설문 항목에 대한 매우찬성-찬성-보통-반대-매우반대의 5점 척도로 한 선호도 조사(리커트 척도)에 참여하고, 이 결과를 공론화위원 중 조사·통계 전문가가 분석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한양대 교수)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4가지 시나리오별 선호도와 함께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 30여가지가 진행된다”면서 “이를 종합해 결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마음을 담은 권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사전 공개될 경우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결정되느냐는 질문엔 “설문 결과로 나온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시나리오별 선호도와 교육과 입시에 관한 가치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당초 제안된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닌 각 시나리오가 중첩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나리오별 선호도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시민참여단의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성, 연령, 지역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해 18만5000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중 2만명이 조사에 응했고, 시민참여단 참여의사를 밝힌 6636명 중 550명을 뽑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1안)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2안)수시·정시비율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3안)수시·정시대학 자율, 수능 상대평가 ▲(3안)수능위주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종합전형 비율 균형,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4가지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주로 학생 선발의 변별력과 관련한 각 시나리오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한국외대

수시모집 설명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한 달여 앞둔 8월 10일 오후 1시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수험생들의 수시지원 전략 최종 점검을 위한 설명회(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한국외대 - 라온지톡 & 수시 파이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외대 대표학과 교수

의 전공 안내, 졸업생 선배의 취업사례 소개를 비롯해 수시합격을 위한 3종 패키지(자기소개서 특강, 논술 특강, 모의면접)가 제공된다.

또 이석록 입학사정관실장의 ‘2019학년도 수시 지원전략 핵심 포인트’ 특강과 사전 온라인 신청자 100명에 한해 1인당 10분간 진행되는 입학사정관과의 1대1 모의면접 체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 대상 1대1 입시상담 등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외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상명대

예비창업가 돕는 ‘창업카페’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 산학협력단 리빙랩연구소가 은평구와 손잡고 예비창업가와 창업에 관심있는 구민들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카페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은평구가 운영하는 ‘서울창업카페 은평블광점’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상명대는 지난달 29일 은평구와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창업카페 은평블광점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일반시민들에게 정보제공과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창업 관



/상명대

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치는 불광역 7번 출구에서 60m 거리로 은평 청년새싹공간(B동 2~3층) 내에 56평형 규모로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실,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오는 8월 개소할 예정이다.

인천대 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 환경in포럼’ 개최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진한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12일 오후 인천YWCA 대강당에서 ‘새로운 인천, 협치를 위한 환경정책 제안’을 주제로 제2회 인천, 환경in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민간차원의 환경정책 과제를 제안한다는 취지다.

포럼에서는 조강희 환경브리핑연구소 대표가 ‘인천시 환경정책에 대한 민선 6기



평가와 민선 7기 과제’에 대해, 서중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인천의 환경행정 및 정책 진단’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5개 환경분야를 정한 지정토론회를 벌였다. 김진한 센터장은 포럼에서 제안된 환경정책을 시 집행부에 전달해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올 수시, 수능 최저 없다... ‘단순’이 특징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⑥ 한양대

학종 합격자에 ‘2~4등급’ 다수

특기자 전형에 학종 40% 추가

한양대 입시의 특징은 전형별로 전형 요소가 아주 단순하다는 점이다. 즉 수시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따라서 한양대 입시에서는 전형별 평가요소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교과성적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으므로 내신성적 기준 합격선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년도 합격자 등급 평균은 인문계열이 1.23등급, 상경계열이 1.20등급, 자연계열이 1.21등급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종합평가 100%로 선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면접 붙잡 등으로 지원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다소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역량(적성) 50%와 인성 및 잠재력 50%의 비율을



김명찬 총로학원 평가연구소장

적용하여 학생부를 종합평가한다. 학업역량의 경우 학생부 교과 등급을 단순 평가하지 않고, ‘수상경력’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학업역량을 평가한다.

인성 및 잠재력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서 확인되는 지원자의 의사소통·창의적사고·자기주도·공동체 의식 역량을 평가한다. 합격자 내신 등급은 1~7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2~4등급대의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성적 70%와 학생부종합평가 30%의 비율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반영하지 않는다.

논술문제 유형을 보면 인문계열은 인문사회통합형, 상경계열 논술은 인문사회통합형에 수학 논술이 혼합된 유형 그

리고 자연계열은 수학 단독형이다. 합격생 논술 평균점수는 인문계열이 95.2점, 상경계열이 66.5점, 자연계열이 76.5점이었다.

특기자전형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는 외국어에세이 100%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60%와 학생부종합평가 40%로 최종 합격자를 정한다. 전년도에는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100%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학생부종합평가’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중요하다.

정시모집은 전년도와 동일한 ‘가, 나’군 분할모집을 실시한다. 가군은 수능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나군은 수능 90%에 학생부교과 1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전년도와 동일인데, 인문계는 국어 30%, 수학(나) 30%, 영어 10%, 사탐 30%이고, 자연계는 국어 20%, 수학(가) 35%, 영어 10%, 과탐 35%로 수학과 과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장학금 혜택이 있는 ‘다이아몬드7 학과’(인문: 행정학과, 정책학과, 파이낸스 경영학과, 자연: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는 대부분 가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군이 나군에 비해 합격선이 높다.

2030 “해외취업, 기회된다면 하고싶다”

2030세대 성인남녀 4명 중 1명은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잡코리아와 시원스클럽이 20~30대 성인남녀 1583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83.4%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런 답변은 20대(83.4%)와 30대(83.9%) 모두 비슷한 수준

으로 높았고, 남성(81.1%) 보다는 여성(84.4%) 응답자가 소폭 높았다.

해외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근무여건이나 복지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 워라밸을 위해’(8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면서 여학 실력 향상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54.9%)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국내 취업이 어려워 더 많

은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45.0%)거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29.1%)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삶의 터전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해외이민 고려)’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5.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응답자 중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응답자는 25.8%로 10명중 2명 정도였다. 이들이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중에는 ‘영어회화’가 복수선택 응답률 60.3%로 가장 많았다. /한용수 기자